

성병관리 이렇게 합니다.

AIDS 상담소 운영 및 내용분석



윤 청 하

1. AIDS란 무엇인가.

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첫 글자를 따서 AIDS라고 부르고 있다. AIDS는 세균의 감염에 대해 신체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밖의 다른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감염되거나, 암에 걸리거나, 강한 약을 복용하거나, 방사선에 쏘이거나 했을때도 면역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AIDS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나 이런 질환을 AIDS라 하지 않고, AIDS는 AIDS 바이러스(HIV Human Immune deficiency Virus) 감염으로 생기는 병을 말한다.

2. AIDS 상담소 설치 배경

AIDS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중에서 가장 급속히 인종과 문화수준, 생활습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퍼져가고 있어 “20세기의 흑사병”, “세기말적 천형”이라는 별명을 낳을 정도로 온세계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질병은 아

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후 잠복기간이 길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속도로 나간다면 금세기가 다 가기전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치료법 개발, 예방 백신 개발과 함께 각종 예방 관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양성자 몇 명만이 발견 되었을 뿐 아직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요즘은 국제 교류가 빈번하고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어느때 전파, 만연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언제까지나 방관만 할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보건사회부는 국내 유입 방지 대책, 국내 전파 방지 대책, 대국민 계몽 및 교육 실시, 상담소 설치, AIDS의 예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AIDS는 그 전염경로 및 예방 방법등에 관한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질

병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AIDS 를 효율적으로 사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13개 시·도지부에 AIDS 상담소를 설치, 운영토록하여 국민들이 AIDS 에 대한 제반 의문 및 궁금증을 해결 함으로써 예방 측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배경에서 1987. 4. 1 부터 AIDS 상담소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3. AIDS 상담 내용 분석

일반 국민들에게 AIDS 의 모든것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하기 위해서 건협 의

그중 남자가 약70%인 1,399명, 여자가 약 30%인 627명이 상담을 했고, 문의 내용별로 보면 총문의 내용수는 5,542건으로 한사람이 2-3가지 이상 문의를 하고 있다. 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AIDS 증상에 대한 질문이 24.4%인 1,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전염 경로에 대한 질문이 21.3%로 1,182건, 예방및 치료관계가 11.9%로 657건, 발병 시기에 대한 문의가 9.4%인 521건, 많은 상대의 성경험 즉 윤락 여성, 외국인과의 성경험등에 따른 AIDS 감염관계 질문이 9.0%인 497건,



AID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잠복기간이 길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속도로 나간다면 금세기내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사, 검사소장, 간호원, 임상병리사등 50여명을 대상으로 AIDS 상담 전문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시·도지부에서 상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소를 첫개설한 4월에는 예상외로 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 왔으며 그 이유로는 T.V, 라디오, 각종 언론 매체가 AIDS 에 대해서 집중 보도함에 따라 국민의 AIDS 의 관심도가 상담 전화로 나타난 것 같다.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친 상담 실적을 보면 상담자수는 총 2,026명으로

성병 및 비노기계 질환등을 경험 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 AIDS 와 관계의 질문이 7.5%인 418건, 그 다음으로는 동성연애 관계 질문이 4.4% 245건, 기타가 13.8%인 766건이 있다. 기타의 대부분의 질문 내용은 검사법 및 검사 수수료, 검사기관 등 다양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상담 내용중 특이할만한 사항은 AIDS 감염의 의심이 짙은 사람도 있었으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 시키지 않아 정확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아

한국 건강관리협회 AIDS상담 전화

| | |
|--------------|-----------------------------------|
| 본 | 부 : 605-3052, 4851, 4852 |
| 서울특별시지부 : | 604-7007, 605-3104, 3056, 4057 |
| 부산직할시지부 : | 553-6611, 6401-4 |
| 대구직할시지부 : | 754-0203, 755-5385, 754-3385 |
| 인천직할시지부 : | 884-0330, 884-7131, 7132 |
| 경기도지부(수원) : | 43-8228, 43-8897, 5-1303, 1697 |
| 강원도지부(춘천) : | 51-4400, 54-4761, 4682 |
| 충청북도지부(청주) : | 3-1100, 2-3614~5 |
| 충청남도지부(대전) : | 523-0660, 2750, 44-1430 |
| 전라북도지부(전주) : | 75-0020, 72-1493, 3-2061 |
| 전라남도지부(광주) : | 363-4040, 33-0447, 0065, 362-4086 |
| 경상북도지부(대구) : | 953-0313, 93-5024, 92-9010 |
| 경상남도지부(마산) : | 42-0066, 2-1606, 5591 |
| 제주도지부(제주) : | 23-0110, 23-6629 |

쉬움이 있었다. AIDS 상담은 개개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다 심도있게 상담을 했으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된다.

4. AIDS에 대한 질의 응답

AIDS 상담 전화 내용중 다수가 문의해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서술코져 한다.

질문 1. AIDS의 증상은

해설 : AIDS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즉시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에서 5-6년 정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잠복기간이 있다.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 간헐적인 발열, 잠자리에서 식은땀, 피로감과 불쾌감, 체중감소(평균 10% 이상), 목·겨드랑이 혹은 대퇴부의 임파선이 붓고, 향문, 손, 입 주변의 부스럼 및 두드러기 증상, 그리고 호흡이 짧아지고 마른 기침이 난다. 여기에서 병이 더 진행되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등이 체내 기회 감염되어

●● AIDS 상담내용을 보면 증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전염경로, 예방 및 치료관계, 발병시기, 많은 상대와의 성경험의 순이다. ●●

카포시육종(피부암의 일종),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폐렴, 음식물이 목에 넘어 가지 않는 증세를 보이는 칸디다성 식도염,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질문 2 : AIDS 의 전염 경로

해설 :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정액, 여자의 질분비물, 체액 등에 존재하면서 혈액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투여, 동성·이성을 불문한 성접촉으로, 또한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도 전염된다. 전염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동성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나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정맥주사를 통해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 혈액이나 수혈체제를 투여 받은 사람, 혈우병이나 기타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가정내 접촉 또는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음식물, 수건, 식기, 물컵, 술잔, 공중목욕탕, 전철·버스 손잡이, 가벼운 포옹 또는 입맞춤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AIDS 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3. AIDS 의 예방법은

해설 : 아직까지는 AIDS 에 대한 치료약품 및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IDS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예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접촉을 주의하고 감염 우려자로 부터 혈액, 혈액제제, 장기이식을 받지 말아야 하며, 모르는 사람 또는 윤락 여성과의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치솔, 면도기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컷볼을 뚫을 때나, 문신을 새기거나 침을 맞거나,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사용할 때는

●● AIDS는 일상적인 가정내 접촉 또는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

반드시 1 회용 또는 멸균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사전에 주의하면 AIDS 를 예방할 수 있다.

5. AIDS 상담소는 어떻게 이용하나

일반 국민 어느누구나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3개시·도지부 AIDS 상담소, 또는 국립보건원 AIDS 관리센터, 전국보건소 민원 안내실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상담에 따른 제반 내용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필자=조사연구부 계장〉